

“Reset(To Follow Christ)!”

2026년 이주민연합수련회 하비스트(Harvest)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

온누리M미션에서 2026년 이주민 연합수련회 하비스트(Harvest, 이하 2026 하비스트)를 개최한다. ‘Reset(To Follow Christ)’을 주제로 막 오르는 2026 하비스트는 9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진행된다.

하비스트는 온누리M미션에서 매년 개최하는 이주민 추석연합수련회다. 2026 하비스트에서는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랍,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등 16개국에서 온 이주민과 차세대, 한국인 스테프와 봉사자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훈 위임목사, 해롤드 김 목사(OEM 담당), 이아르뚜르 목사(서빙고 러시아예배 담당), 김태완 목사(온누리M미션 본부장)가 강사로 나선다.

김태완 목사는 “2026 하비스트가 열방의 이주민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가정과 공동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 하비스트 봉사자도 모집한다. 주차, 안내, 예배 자막, 무대FD, 중보기도, 식사 안내, 환경미화, 의료 등 분야에서 이주민 형제자매들을 섬기게 된다. 집회 기간 전체뿐 아니라 당일 봉사도 가능하다(숙소 요청 가능). 참가신청은 9월 15일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후원: 하나은행
573-810033-13205 온누리교회
문의: 031-491-9650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하반기 온라인커뮤니티 개강

9월 29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하반기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개강한다.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또는 하단 QR 코드로 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이 온라인에서 모이고 교제하는 공동체다. 소그룹으로 <생명의 삶> 묵상 내용과 삶을 나누며 신앙 성숙을 돕는다. 이번 학기에는 여성민, 김철희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 홍하영 기자



하반기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2026 하반기 시니어아카데미(서빙고, 양재, 부천)가 개강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을 주제로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찬양콘서트, 특별강의, 가을 소풍 등이 이어진다.

양재온누리교회는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에서 열린다. 예배와 간증, 특별강의, 가을 소풍 등을 한다. 부천온누리교회는 10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배, 레크리에이션, 야유회, 미술활동 등을 한다.

시니어아카데미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개강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성도가 대상이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2-3215-3220(서빙고)
02-570-7349(양재)
010-5334-8413(부천)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HARVEST

2026 Chuseok

Migrant Joint Retreat

온누리

M센터

ONNURI M CENTER

RESET

TO FOLLOW JESUS!

9.25(FRI)~27(SUN) 파주 영산수련원

Youngsan Retreat Center in Paju

신청 QR

가을학기 공동체성경읽기모임(PRS) 개강

9월 11일~12월 11일 매주 금 오전 9시 30분

가을학기 ‘공동체성경읽기모임(PRS)’이 개강한다.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가을학기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따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과 신앙 고전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눈으로 읽고, 나누면서 신앙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다. 신앙 고전은 팀컬러 목사의 <기도>를 읽는다. 간단한 간식을 나누며 교제하



고, 오전 10시부터 공동체성경읽기와 신앙 서적 읽기를 한다. 문의: 010-4549-2925 / 박지혜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마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말로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염려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격을 오래 붙들고 살아서 당연하게 여기는데, 본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본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에 생각과 행함이 분리된 것입니다.

말씀, 영혼을 비추는 거울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약 4:17).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생각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앎과 행함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바로 우리에게 미친 죄의 영향력이지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22절).

단지 실수했거나 게으르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감정을 속인다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중요한 한 단계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행함이 없다면 스스로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감동한 것을 순종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을

실천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나 동의, 깨달음이나 결심, 그 어떤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23~24절).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이나 외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당시에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이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청동을 문질러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씻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거울을 자세히 살피고도 돌아켜서는 잊어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네 가지 의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약 1:18).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낳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은 통로가 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둘째,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입니다(21절).

어떤 분들은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이성이나 아니냐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받으라’는 동사를 보십시오. 밖에서 온 것, 곧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심는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을 이미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셋째, 이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이 영혼을 능히 구원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마음에 심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말씀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넷째, 이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25절).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계명보다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율법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죽은 문자로 남아 우리를 정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이 되었을 때, 자유를 누리는 율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법에서 자유케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 안에 머문다는 것을 ‘그 안에 거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본래 지음을 받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22절).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낳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고, 영혼을 구원할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표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손에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함이 없는 것은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고 더러운 것도 있는데 씻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씻김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며,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실천입니다.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깨달은 것,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19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자신의 말만 빨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동일할 가능성이 큼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자신의 말을 삼가고, 분노를 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에 심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네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 네 말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네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겔 33:31~32).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보다 마음이 단힐 때가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25절).

직역하면 ‘그의 행함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만일 복이 행함의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일 뿐입니다. 복이 행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행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행함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과정 자체에 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있던 미움의 쇠사슬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이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섬김 뒤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을 굽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갑니다.

우리가 순종을 미룰 때, 실천을 미룰 때 늘 같은 말을 씁니다. 조금 더 기도한 뒤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형편이 좋아지면. 이 변명들이 그치고, 바로 지금, 오늘 행하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 간격은 우리 스스로 메울 수 없습니다. 이 간격을 메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과 우리의 죄인 된 상태를 연결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아는 것과 행하는 간격을 좁혀가시는 분입니다. 이미 듣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고, 행함으로 연결하는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낙태가 의료 행위일까?

낙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 “낙태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합법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낙태는 도덕적으로 문제시되는 행위지만, ‘의료 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옹호하기가 쉬워진다. 하지만 명칭을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본질이 의료 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낙태를 의료 행위라고 주장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의료의 목적은 생명을 치유하거나 보존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오랫동안 의사 자격을 얻으면서 “해를 끼치지 말라”고 서약해 왔다. 낙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궁외임신이나 암과 같이 드물고, 비극적인 경우 의사가 산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태어나기 전 아기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 생명을 의도적으로 끝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의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의료의 본질에서 벗어난

다. 더욱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비극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은 현실의 낙태 논쟁에서 핵심이 아니다. 낙태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낙태가 단지 산모가 더 이상 임신 상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낙태가 과연 의료 행위인지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있다는 증거다. 임신은 질병이 아니라 생식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낙태는 신체의 건강한 기능을 보존하는 대신, 인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중단시켜 그 기능을 방해한다. 따라서 낙태는 의료 행위라기보다 오히려 의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낙태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기 때문에 의료 행위가 아니다.”

수 있다.

둘째, 임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낙태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료는 신체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면, 낙태는 오히려 그 기능을 방해한다.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임신 자체는 생식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셋째, 낙태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기 때문에 의료 행위가 아니다. 낙태가 인간의 생명을 끝낸다는 사실에는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낙태 시술 의사이자 낙태 클리닉 설립자인 버트런 웨이너를 비롯한 여러 낙태 옹호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낙태는 죽이는 행위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

할 수 없다. 태아가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살아 있고, 임신이 중단되면 죽는다.”

이러한 인정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의료의 목적과 충돌한다.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낙태를 의료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물론 낙태를 정당화하는 주장 역시 반박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낙태가 의료 행위라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의료의 목적은 신체의 건강한 기능을 보존하거나 회복하는 것이다. 낙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임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낙태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낙태는 신체의 건강한 기능을 방해한다.”

“낙태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기 때문에 의료 행위가 아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하나님의 형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범죄론 및 형벌론



이상현 안수집사
(강남E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대학 시절 형법 강의에서 형사책임의 본질을 크게 ‘인간의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선택한 비난 가능성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범죄는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범죄인의 성격 산물이라고 볼 것인가?’라는 논쟁이 있음을 배웠다. 이는 비결정론 대 결정론의 논쟁,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은 범죄 행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해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의 논쟁과 관련이 있다. 철학 사회학에서도 유사 논쟁이 있다. 견문이 적은 탓인지 이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 알지 못했다. 청년 시절 설교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에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쪽에서 비결정론의 입장에서 에세이의 결론을 냈던 기억이 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며, 사회 속에서 배우고 영향을 받는 존재다. 하지만 결정론의 한 분파나 극단에서는 자유의사를 ‘허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인간은 고등동물로 생물학적 영향과 사회의 영향에 좌우되는 존재로 범죄 수행 여부도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결론으로 쉽게 나아가게 된다. 범죄 충동은 생물학적·유전적 결과이거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욕구로 보아 범죄인을 처벌의 대

상이 아닌 특정한 사회정책 및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보았다. 일부 생물학적 치료 또는 제재나 범죄의 대책으로서의 사회정책은 현대의 형사정책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나친 결정론적 시각은 조직적이나 대규모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1940년대 유대인을 열등하고 악한 종족으로 규정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이 나치 홀로코스트의 근거가 되었다. 1950~1960년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죄를 계급 투쟁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격리와 재산 박탈 같은 억압적 사회정책, 장기 투옥으로 지주와 자본가의 죄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질 것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존 하워드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실 것이다.”

악을 단죄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다가 반동으로 몰려 처형되거나 폐가를 겪는 일들도 다수 나타났다. 해방 전후와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도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지식이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 낙태나 강제 불임 수술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동성애적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지식도 오류로 증명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인해 죄악 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영혼이 구원

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주로 생물학적 유전적 결과라거나 사회적 경제적 결과로만 범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을 받을 때나 언론 기사를 접할 때,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을 키우고, 기독교적 세계관 관점에서 학문의 성과를 재평가 내지 분별하는 작업도 크리스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형벌 교정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로 감옥계량운동을 했던 존 하워드를 들 수 있다. 1726년 영국 런던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던 존 하워드는 47세이던 1773년 영국 베드퍼드셔(Bedfordshire) 보안관으로 임명돼 감옥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베드퍼드(Bedford) 감옥에서 당시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돈을 받아 생계를 꾸리는 상황, 무죄판결을 받고도 석방비(당시 영국에서는 석방비를 납부해야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음)가 없어 갇혀 있던 빈민, 대량 수감 상황에서 창궐하는 전염병 등 감옥 운영상 부조리와 비위생적 상황을 목격했다.

존 하워드는 영국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 석방비 제도를 없애고, 판사들이 구금된 이들의 위생(건강) 상황을 참고해서 양형을 정하는 입법을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남녀 분리 수용과 독거구금을 주장했고, 18세기 중반 신앙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 감옥 개량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보건에서도 힘을 쓰기도 했다. 영국에서 비국교도로서 칼뱅주의 청교도 신앙을 일생 실천했다는 존 하워드는 현대적 교도소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평가된다.

우리 모두 존 하워드와 같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기도 한다. 또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기도 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QT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 실천할 때, 잘못된 이론이나 사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갈 수 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잘못된 이론에 빠진 이들은 적(사단)이 아니라, 적의 희생자들이다. QT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할 때, 크리스천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실 것이고, 성도들도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성도가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질 것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존 하워드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실 것이다.

강남B공동체
안산M센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 잘 아는 나라

나는 요새 유튜브에 넘쳐나는 이른바 ‘국뽕’ 영상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다. 여행차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곤 한다. “거리가 깨끗하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친절하다”, “멋진 풍경이 많고 놀거리가 많다”, “한국 음식은 푸짐하고 맛있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신기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여자 혼자 밤늦게 다녀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등의 칭찬을 쏟아낸다. 정작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던 것들인데,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한 나라, 안전한 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어깨가 으쓱해진다. 우리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에서 짧지 않은 시간 머무는 이들도 있다.

한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던 8월 여름날, 아웃리치 시즌을 맞아 강남B공동체 은혜다락방과 충성다락방 지체들이 안산M센터로 향했다. 차세대 꿈이자라는땅 선생님들과 여호수아청년부 청년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마련한 여름캠프를 함께 섬기기 위해서였다.

이번 여름캠프는 차세대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 현장이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



강남B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안산M센터 차세대 여름캠프'를 섬겼다.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7, 개역 한글).

올해 차세대 여름 캠프 주제인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열매를 거두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이번 여름캠프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 30여 명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참가했다. 아이들을 따라온 부모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셨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팔찌’를 만들어 드리며 다국어복음 앱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 꿈이자라는땅 선생님들을 도와 여호수아의 순종과 모험을 배우고, 이를 에어로켓, 드론, 자동차 조종 등 과학 프로그램으로 체험하게 하는 ‘공과공부팀’, 불고기 찜밥과 시원한 과일화채로 점심과 간식을 준비한 ‘식사팀’, 일상품과 과자 세트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선물팀’, 치과와 내과 진료로 건강을 돌보는 ‘의료팀’, 포도존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리며 추억을 선사하는 ‘사진팀’, 좁은 공간에서도 100명 넘는 인원이 원활히 활동하도록 살피는 ‘안전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이번 여름캠프를 섬겼다.

귀한 여름캠프에 우리를 초대해주신 안산M센터 김태완 목사님, 시종일관 활력 넘치고 씩씩하게 캠프를 이끄신 임지민 전도사님, 꿈이자라는땅 선생님들과 여호수아청년부 청년들의 은혜로운 섬김에 크게 감동했고, 감사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우리에게 선교적 의미가 큰 시간이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공동체의 선교전략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선교모형을 만들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들을 왜 섬기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 깨끗한 나라, 친절할 나라, 안전한 나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하나님



한제희 집사
(강남B공동체)

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아는 나라임을 알리고 싶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소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평택온누리교회 믿음공동체
캄보디아

스вай프룸 마을의 ‘작은 러브소나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캄보디아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그동안 어린이사역과 의료사역, 노방전도, 선교사 블레싱 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올해는 의료사역 대신 처음으로 성인사역을 준비했다. 기대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어 주실까’ 하는 염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

2005년 강희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1년 동안 스와이프룸 마을에 묵묵히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 오신 선교사님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을 어르신 60여 분을 초청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육볶음, 잡채, 소떡소떡, 오이탕탕이, 김치까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음식 한 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마음을 가장 울렸던 장면은 어르신들 머리 위에 올려진 작은 화관이었다. 14년 동안 일본 러브소나타 화관팀장으로 섬기며 화관을 만들어 오신 김성옥 권사님이 이번 아웃리치에 참가하셔서 60여 개의 화관을 손수 준비해 주셨다. 화관 하나하나에 권사님의 기도와 사랑,



평택온누리교회 믿음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캄보디아 스와이프룸 마을에서 ‘작은 러브소나타’를 개최했다.

오랜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준비한 기프트 박스에는 화관과 함께 파스, 밴드, 인공눈물, 선크림, <최고의 행복> 복음 전도지를 담았다.

화관을 쓰고 아이처럼 웃으시며 두 손을 꼭 잡아 주시던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렸다.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나누고, 예배드리면서 스와이프룸 마을에 성인 예배가 세워지는 소중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21년 동안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오신 선교사님의 기도

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 가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음식을 만드는 손길, 화관을 엮은 정성, 선물을 포장하며 드린 기도 등 묵묵히 섬긴 아웃리

치팀원 16명의 손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스와이프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다. 한 마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 스와이프룸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러브소나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사랑의 노래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캄보디아 땅의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한다. 성인 예배가 든든히 세워져서 스와이프룸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셔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고, 오랫동안 기도해 온 선교의 문을 조금씩 넓혀가고 계셨다.

이번 아웃리치는 누군가를 도우러 간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작은 섬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스와이프룸 마을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작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한형창 집사
(평택온누리교회)

송파A공동체
그리스 · 튀르키예

바울로부터, 우리 순례단에게

2년 전 CGN에서 방영된 ‘바울로부터’를 순례 교재로 사용하면서 1학기 내내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지도로 그려가며 공부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송파A공동체 해외 아웃리치 지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직접 찾을 생각에 기대가 컸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순례단을 태운 버스가 첫날 국경을 통과해 그리스 빌립보로 향했다. 에그나티아 대로의 중간 지점인 빌립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첫 선교 교두보를 세우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세찬 강물 소리를 들으며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감격스럽게 올려드렸다.

메테오라와 고린도를 지나 아테네에 도착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가보고 싶었던 언덕 ‘아리오바고’를 둘러본 다음, 저녁 배를 타고 히오스 섬을 경유해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를 지나 갈라디아 지역으로 향했다. 루스드라에서는 김반석 선교사님이 바울의 행적을 ‘황소, 돌, 강촌’으로 정리해 주었다.

“얕은뱅이를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 황소를 바치려 했던 사람들이 오후에는 바울을 돌로 쳐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다음 날 바울은 그곳에서 강촌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순례단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루스드라의 버려진 작은 동굴 교회를 찾았다. 바울이 당했



이스탄불 선상에서 튀르키예 가이드 딜락을 위해 축복기도를 하는 송파A공동체.

던 고초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중창으로 불렀다. 바울의 고초가 생생한 땅에서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울컥했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갑바도기아를 포함한 갈라디아는 대표적인 응회암 지역이다. 그래서 정과 망치만 있으면 어느 바위든지 내부를 파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갑바도기아의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지하 7층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로, 그리스도교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지하에서 생활했던 곳이다. 순례단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 지역을 위해 기도했다.

히오스 섬에서는 한국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곳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김경옥 집사님에게 축복기도를 드렸다. 잃어버렸던 예수님과 의 첫사랑을 다시 찾고 싶다는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이곳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다시 살아가기를 기도했다.

튀르키예에서 동행한 현지인 가이드 딜락을 위해 보스포루스 해협이 보이는 선상에서 축

복기도를 했다. 딜락은 최근 동생이 암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무슬림임에도 기도를 받아들였다. 딜락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기대했다.

마지막 날에는 김반석 선교사님이 만난 이란 난민 두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 이란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알리레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현재는 튀르키예에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사촌 파렐과 딸은 난민으로 사는 어려움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순례단은 두 가정을 위로하고 축복했다.

지금은 무슬림 땅이 된 열악한 선교지인 튀르키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다시 많은 이들이 예배하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적어 보낸 편지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많은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리라”는 <이사야> 말씀이 바울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순례단에게 이어지기를 다짐했다.



김양숙 집사
(송파A공동체)

남양주온누리교회 남양주B공동체
남양주M센터 캄보디아공동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아직 신앙의 걸음마를 떼고 있는 초신자이다. 지난 4월 박종호 선교사님의 간증 콘서트에서 큰 은혜를 받고,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꼭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남양주M센터 이주민 지체들을 위한 아웃리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처음 경험하는 섬김이었기에 설렘과 걱정이 함께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왔다. 한마음으로 섬겨야 할 팀 안에서 여러 고민이 생겼고, 나 역시 ‘과연 이 아웃리치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었다. 아웃리치를 이틀 앞둔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문득 두 장면이 떠올랐다. 팀의 분열을 보며 웃고 있는 사탄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이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사역을 앞두고 흔들리는 나와 팀의 모습이 너무 죄송했다. 내 마음에서 기도가 흘러나왔다.

“부족하지만 저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지체들을 위해 캄보디아어로 찬양 ‘은혜’를 부르는 남양주B공동체 소망다락방.

기도를 마칠 무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다. 문제 상황이 당장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웃리치 당일에도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웰컴 부스에서 지체들을 맞이할 때부터

밝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레크리에이션과 식사 시간에는 삼겹살과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이주민 지체들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캄보디아 지체들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네팔,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 지체들도 함께했다. 그 덕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아웃리치 팀원

들이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과 선물은 이주민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였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외로움과 눈물을 친히 위로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과 갈등, 부족함이 있더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나의 작은 믿음이 부끄러웠다. 부족한 나에게도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나의 작은 섬김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자녀로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도는 내 의지로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를 기도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해 깊이 깨달았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민섭 성도
(남양주온누리교회)



2026 원스피릿 컨퍼런스 '광야의 노래'

예배사역자 컨퍼런스 '2026 원스피릿 컨퍼런스'

온누리교회 예배사역자 900여 명 참석

예배사역자 컨퍼런스 '2026 원스피릿 컨퍼런스'가 '광야의 노래'를 주제로 지난 8월 22일(토)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용인, 영종, 서산)를 비롯해 김

포M센터, 여성사역, S브릿지, 국제부, 스페인어예배 등에서 밴드와 보컬, 찬양사역팀, 성찬·세례팀, 주차팀, 러빙핸즈, 통역팀 등으로 섬기는 예배사역자 9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원스피릿 컨퍼런스는 찬양, 온누리성가사 연합중창단 특별찬양,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광야의 노래

'(시 42:1~11), 장동원 목사(예배본부장)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예배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목마름이 살아있기를 바란다"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원스피릿(One Spirit)'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온누리호스피스학교 참가자 모집

9월 8일~11월 3일 매주 화 서빙고 성가대실

온누리호스피스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

면 된다.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8만 원.

이환희 목사(온누리호스피스 담당)는 "환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불드심을 경험하도록 돕는 호스피스 사역에 많은 성도가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3412-796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7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추천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7년 상반기(1~6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추천을 9월 22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한다. 결혼예배를 예약하려면 예비 신랑과 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여야 한다. 예비 신랑과 신부는 타 교회 상관없이 등록 성도여야 한다.

결혼예배 예약 추천을 하러 올 때는 예약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비해야 한다. 등록교인증명서와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추천 당일 예비 신랑과 신부만 예약할 수 있다. 부모, 형제, 친척의 대리 참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천하고, 그 순서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정한다. 온누리교회 목사만 주례할 수 있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식이 진행된다. 문의: 02-570-7505

LOVE & MARRIAGE 3기 참가자 모집

LOVE & MARRIAGE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행가래 비전센터(종로)에서 열린다(추석 연휴 제외). 10월 9일에는 야외 만남 'One-Day 리트릿'을 할 예정이다. LOVE & MARRIAGE 3기는 소수정예 프라이빗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8월 30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 서류 심사 후 선정된 참가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개별 안내한다.

문의: 010-3340-7039

한국어선교학교 가을학기 참가자 모집

한국어선교학교 가을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 강의를 이어진다. 1주차와 10주차에는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현장 강의를 한다. 참가신청은 9월 12일(토)까지 아이스쿨이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 등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5663-3509



인도네시아 람퐁 러브소나타 개최

송파B, 메디엑세스 마노아팀, 인도네시아 CGN 연합

송파B공동체와 NGO 메디엑세스 마노아팀, 인도네시아 CGN이 연합해 지난 8월 14일(금) '인도네시아 람퐁 러브소나타' (이하 람퐁 러브소나타)를 개최했다. 람퐁 현지 사역자 추주엽 선교사도 함께했다. 메디엑세스 마노아팀은 현지 의료진과 교류하며 교육을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 CGN은 사역 현장을 촬영 및 인터뷰를 기록했다.

올해 람퐁 러브소나타는 송파B공동체 엘레오티(Eleo, 위로하다) 공연, 창조과학 드라마, 어쿠스틱 기

타, 색소폰, 무언극, 김용산 목사(송파B공동체)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초청자 13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했고, 18명은 '앞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유경아 안수집사(송파B공동체)는 "우리가 람퐁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한 우리를 선교하시기 위해 람퐁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다"면서 "하나님이 친히 차례주시는 천국 잔치를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 박지혜 기자

라오스에서 '총체적 선교' 아웃리치

NGO 더멋진세상과 관악금천공동체 연합

NGO 더멋진세상과 관악금천공동체(김상수 목사 담당)가 지난 8월 15일(토)부터 21일(금)까지 라오스에서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아웃리치를 했다.

라오스는 종교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현지 사역자들이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사역을 이어오는 지역이다. 관악금천공동체는 현지에서 필요한 청년교육, 보건, 체육 등을, NGO 더멋진세상은 지

역사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사역자와 공동체를 연결했다. 또한 현지 청년 22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농촌 지역 어린이 250여 명을 대상으로 운동회, 보건교육 등을 했다. 보건교육은 더멋진세상이 건축하고, 의료기자재를 지원한 보건소에서 진행했다. 현지 사역자와 10년 동안 교제해 온 청년의 세례식도 열렸다.

/ 홍하영 기자

다바르(Davar), 입소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 지원

온누리복지재단에 체압분산 매트리스 전달

친환경 메모리폼 전문업체 다바르(Davar, 대표 성용준 집사)가 지난 8월 24일(월) 온누리복지재단을 방문해 체압분산 매트리스를 전달했다. 온누리요양센터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다. 다바르는 이번 기증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17개, 1천만 원 상당의 매트

리스를 온누리복지재단에 후원했다.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송영범 장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다바르에 감사드린다"면서 "온누리요양센터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장로아카데미 하반기 참가자 모집

9월 15일~10월 13일 매주 화 서빙고 믿음홀

2026 장로아카데미 하반기(오픈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장로아카데미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 상

호 친교 및 온누리교회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과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은 8월 31일(월)까지 목회행정실 김경렬 간사(mtop1@nate.com)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원 15명,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3215-3234

서빙고 OBC 가을학기 모집

서빙고온누리교회 OBC(Onnuri Bible Club) 가을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3일부터 '하나님의 성품' (9.3~11.5), '시편'-여호와를 찬양하라' (9.4~11.6), '로마서' (10.12~11.30), '빌립보서' (10.15~12.3), '갈라디아서' (10.21~12.9), '그리

스도인의 삶' (10.21~12.9)을 주제로 온라인 8주 과정이 각각 개설된다(자세한 사항은 아이스쿨 참고).

참가신청은 개강 하루 전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8480-9970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 하트스쿨 수료 간증



/ 김지혜 성도(송파A공동체)

감사와 감정 알아차림

하트스쿨 10주 과정을 마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이 ‘감사’다. 이 수업을 신청할 때만 해도 단순히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아이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부부와 부모자녀 간의 소통 방법을 배우며, 우리 가정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감정 알아차림의 중요성’이었다. 우리는 때로 화가 나고, 서운하고, 두렵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나가곤 한다. 하지만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 시간을 통해 리안이를 향한 기도가 더욱 분명해졌다. 리안이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룰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한다. 낯선 환경을 어려워하던 리안이가 처음 보는 형, 누나들과 수업에 참여하며 “재미있어”, “또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작은 적응 과정 하나하나가 아이를 붙드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큰 은혜는 남편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육아와 바쁜 일상에서 어느새 꼭 필요한 이야기만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다. 마음 한편에 벽을 세우고 있었고,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시간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하트스쿨에 참여하면서 잠시나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굳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고, 남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동역자임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

10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조금씩 만져 주셨다.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다시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주셨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 우리 가정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배움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서로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리안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품을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한다.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권미현 집사(여의도공동체)

큐티를 새로 배우다

처음에는 ‘큐티스쿨’을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큐티’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러나 익숙한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는 그동안 큐티를 해왔다고 생각했다. 돌아켜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는 통독과 묵상, 암송과 기도를 아침에 빨리 끝내야 하는 과제처럼 여기고 있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오늘도 해냈다’라는 성취감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큐티스쿨 강의로 그동안 내가 했던 나눔은 큐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과 감정 중심의 나눔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큐티는 내 상한 감정이나 현실의 문제보다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내가 가장 취약했던 ‘적용’에 대해 배운 것이 큰 은혜였다.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창한 결단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특별하고 큰 사건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앞으로는 큐티 본문을 서너 번 곱씹으며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섰더니 두려움과 염려가 점차 사라졌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 주시면서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셨다.故 하용주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참된 행복은 세상의 성공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배웠다. 이제는 단순히 분량을 채우는 읽기가 아니라, 한 말씀, 한 단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소망한다.

■ 261기 순장학교 수료 간증



/ 황상철 성도(마포공동체)

특별한 업그레이드

261기 순장학교에서 보낸 10주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순’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이전에는 순을 교회의 작은 조직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순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는 세포 같은 공동체이며, 순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되었다.

순장학교에서 얻은 은혜를 정리했다. 첫째, 온누리교회의 시작과 역사, 목회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모든 사역을 이해하는 기본임을 깨달았다. 둘째,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다. 그동안 전도와 선교가 막연한 목표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순원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동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순장학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셋째, 순예배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모든 문제를 순장과 순모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순일지라도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돕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있고,

튼튼한 영적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교회가 순장과 순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통해 순과 순장을 향한 사랑과 기대를 엿보았다. 예비 순장으로서는 자부심과 사명감도 갖게 되었다. 다섯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나의 믿음과 기도가 가족과 순원, 교회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고, 섬김의 시작이 기도임을 깨달았다. 여섯째, 261기 순장학교 동기들을 통해 큰 용기와 도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배우려는 열정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장학교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여정을 위해 준비해 주신 특별한 업그레이드 같았다. 나는 이코노미 티켓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티켓을 퍼스트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셨다. 순장학교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 제자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시야를 넓혀 주셨다. 이제 순으로 돌아가 이 좋은 업그레이드 기회를 모든 순원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 결혼비전스쿨 ‘With 4U’를 마치고



/ 정기현 담임목사(의정부예원교회)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예원교회 개척 시절 전도사로 부임해 중고 등부 아이들과 함께했었다. 13년 전 담임목사로 다시 부임했을 때 교복을 입고 뛰놀던 아이들이 어느새 청년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나에게 그들은 개척 시절을 함께한 다음세대이자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미래를 함께 세워가는 소중한 동역자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그 과정에서 이성 교제와 결혼, 가정을 이루는 일이 중요한 삶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청년들에게 기독교적인 결혼준비학교나 이성 교제 세미나에 참여해 보기를 권유했는데,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에서 열리다 보니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컸다. 마음은 있어도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순종하기로 했다. 우리 교회 청년들뿐 아니라 같은 필요를 가진 주변의 기독교 청년들도 함께하도록 결혼비전스쿨 ‘With 4U’를 개최해달라고 행가래운동본부에 요청했다.

3주 동안의 세미나에서 청년들은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하거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언약이며, 서로를 통해 성숙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부르심임을 배웠다. 또한 원가정과 관계, 성적 친밀함, 재정 등 실제적인 주제까지 다루며 삶과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나도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청년들을 위한 목회적 꿈을 더욱 분명하게 품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비전스쿨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며 신앙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도록 돕고 싶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뿐 아니라 가정을 이룬 커플을 위한 후속 양육도 이어가려 한다. 경기 북부 지역 목회자들과 연합해 청년들이 결혼과 가정을 믿음 안에서 준비하도록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시간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illegible][illegible]